

보도 일시	2023. 3. 23.(목) 11:00 2023. 3. 23.(목) 석간	배포 일시	2023. 3. 23.(목)
담당 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컨소시엄운영부	책임자	부장 박태훈 (052-714-8251)
		담당자	차장 김현민 (052-714-8252)

한국산업인력공단, 삼성전자 등 18개 기관과 특화형 공동훈련센터 운영 약정체결

- 첨단분야 공동훈련센터 2개소,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3개소, K-디지털 플랫폼 13개소 약정
- 디지털,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 이하 ‘공단’)은 23일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에서 삼성전자 등 18개 기관과 특화형 공동훈련센터 사업 약정을 체결했다.

공단은 지난 2월 심사를 거쳐 디지털,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 훈련 전문성을 보유한 18개 기관을 특화형 공동훈련센터 운영기관으로 신규 선정했다. 운영기관은 첨단분야 공동훈련센터(2개 기관),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3개 기관), K-디지털 플랫폼(13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화형 공동훈련센터 운영기관 <유형별 가나다순>]

연번	유형	운영기관명	주요 분야	운영지역
1	첨단분야 공동훈련센터 (2개 기관)	삼성전자	반도체	경기 평택시
2		한국광산업진흥회	반도체	광주광역시
3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3개 기관)	광주그린카진흥원	자동차	광주광역시
4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화학	경기 과천시
5		현대중공업	조선	울산광역시
6	K-디지털 플랫폼 (13개 기관)	CJ올리브네트웍스	클라우드	인천광역시
7		(주)LS	빅데이터	경기 안성시
8		강원대학교	메타버스	강원 춘천시
9		고양산업진흥원	드론	경기 고양시
10		그린컴퓨터아카데미	메타버스	부산광역시
11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메타버스	부산광역시
12		(주)멀티캠퍼스	빅데이터	서울특별시
13		순천대학교	AI	전남 순천시
14		스마트인재개발원	AI	전남 목포시
15		알파코	AI	서울특별시
16		청주대학교	드론	충북 청주시
17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충북지회	드론	충북 청주시
18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지능형로봇	경기 안산시

공단은 약정식에서 2023년 공동훈련센터별 운영 방향을 소개하고, 18개 운영기관과 간담회를 가져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운영기관은 약정체결 시점부터 중소기업과 근로자, 취업예정자 등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성 있는 훈련과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기업이나 사업주단체가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훈련을 실시하는 거점이다.

그중 첨단분야 공동훈련센터는 반도체·바이오 등 신기술 훈련 분야를 중심으로 하고, 공단은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훈련 장비 구축비 등 기관별 5년간 최대 30억 원을 지원한다.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는 저탄소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공단은 기관별 5년간 최대 45억 원을 지원한다.

K-디지털 플랫폼은 중소기업 근로자나 구직 청년 등 지역 내 다양한 훈련 수요자에게 디지털 융합훈련이 가능한 시설을 제공하고, 공단은 기관별 5년간 인프라 비용 최대 30억 원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SK텔레콤 등 전국 20개 K-디지털 플랫폼에서 12,687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융합 훈련을 하였으며, 삼성중공업 등 전국 15개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에서 4,351명을 대상으로 산업전환 훈련을 한 바 있다.

공단은 내년에도 운영기관을 추가 선정해, 첨단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점차 증가하는 미래 첨단 산업 분야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공동훈련센터 참여 기업들의 역량을 강화해 산업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약정으로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미래 첨단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특화형 공동훈련센터 모델을 확산해 한국형 인적자원개발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